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잠재창업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민 경

잠재창업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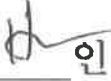
# 인준서

김민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 차 경옥 

심사위원 양 수진 

심사위원 최 경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잠재창업자로 볼 수 있는 대학생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창업은 최근 저성장, 기업구조조정, 고용 불안 속에서 대학생 실업의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창업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잠재창업자인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에 영향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많은 다양한 요인 중 잠재창업자인 대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 즉 다양한 성격 특성이 창업의욕 및 기타 창업 관련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성격과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창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조사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대학생의 성격,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이 대학생의 여러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는 대학생 성격으로 매개변수는 창업실패부담감으로 종속변수는 창업의욕으로 설정하여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본 모델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영향력 관계가 대학생의 창업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대학생의 창업 교육지원경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의욕이 여러 특성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창업실패 부담감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높았다. 향후 대학생의 취업

희망분야를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실패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통신·운수 분야를 희망하는 경우 창업실패 부담감이 가장 낮았다. 한편,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창업의욕이 긍정적이었으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또한 많은 (81-100만원) 용돈을 쓰고 있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이 가장 강했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 의욕은 남학생, 4학년 학생, 본인 용돈이 낮은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사교성향이 높고,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고, 위험감수성향이 높으며, 본인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수준이 낮았다. 또한,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창업의욕이 약한 경향이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창업의욕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창업교육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교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이 사업실패부담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데 창업교육이 중요 함을 뜻한다.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 역시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욕 수준에 따라 창업의욕이 낮은 집단, 창업의욕이 보통인 집단, 창업의욕이 높은 집단, 3 집단으로 구분한 후 중 어떤 변수가 이들 3 집단을 잘 판별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성별,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욕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행동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즉 대학생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창업  
교육 전략의 지속적 발전이 기대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7
<b>II. 이론적 배경</b> .....	9
1.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 .....	9
1) 사교성 .....	10
2) 창의성 .....	11
3) 성공지향성 .....	11
4) 위험감수성 .....	12
5) 자아존중성 .....	12
2. 창업실패 부담감 .....	13
3. 창업의욕 영향 요인 .....	14
4. 창업교육 경험과 창업 .....	18
<b>III. 연구문제 및 방법</b> .....	21
1. 연구문제 .....	21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	22
3. 측정도구 .....	23
4. 자료 분석방법 .....	25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26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26
2.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 차이 검증 .....	28
3.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	32
1)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 .....	32
2) 창업의욕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 .....	34
4. 창업교육경험 조절효과 검증 결과 .....	37
5. 창업의욕 수준에 따른 집단들 판별분석 .....	38
<b>V. 결론 및 제언</b> .....	42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차

<표1>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24
<표2> 조사대상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275) .....	27
<표3> 조사대상 대학생의 창업 관련 특성 (n=275) .....	28
<표4>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 차이 검증 .....	29
<표5> 대학생의 창업의욕 차이 검증 .....	31
<표6>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도 확인 .....	33
<표7>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	34
<표8> 창업의욕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	35
<표9> 측정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비교 .....	37
<표10> 경로계수 차이검증 .....	38
<표11> 대학생 창업의욕에 대한 판별분석 함수 분석 결과 .....	39
<표12> 창업의욕의 판별분석 결과표 .....	40
<표13> 대학생 창업의욕 분류결과표 .....	41

## 그림 목차

<그림1> 본 연구 모델 .....	22
<그림2> 창업의욕 영향 요인 구조분석 결과 도식 .....	36

# I. 서론

## 1. 연구배경

창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행동인데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양인숙(2005)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목표를 세우고 보통 자본, 설비, 원자재, 인적 자본 등을 확보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창업은 새로운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최근 저성장, 기업구조조정, 고용불안 속에서 대학생 실업의 대안으로 간주 되고 있다.

창업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창업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동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력 특성에 관한 연구, 창업자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창업태도와 인식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의 교육수준, 연령이나 성별, 가족배경, 경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 소재 인식 등 심리 특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창업자의 특성에 대해 지배적인 견해는 창업자는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감수자일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강한 성취 욕구와 창업 실패 관련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박지유, 양해술(2013)의 연구에서 창업가의 특성 중 성취성, 혁신성, 창의성, 위험감수성은 개인의 창업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취성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30세 이하(대학생 창업가)에서 진취성향이 매우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창업기회를 갖는데 있어 창의성이 중요할 수 있다. 성격은 창업자의 중요한 특성이며, 창업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성별, 연령 등을 넘어 성취욕구, 자율

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독립성 등 심리적 특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대학생층은 일반 창업자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고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예비 대학생 창업자들은 기존 직장 경험을 갖춘 창업가와 달리 창업의지가 다른 성공요인들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여러 개인적,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사결정에서 중요하고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성공에 대한 인식, 위험감수성향, 자아존중감 등이 대학생의 창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업에 영향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많은 다양한 요인 중 대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 즉 다양한 성격 특성이 창업의욕 및 기타 창업 관련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특성, 창업 의지 관련 연구(강성일, 박시사, 2007; 이지우, 2000; 윤방섭, 2004;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 2009), 창업자의 가족배경, 경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의 소재 등 심리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개인의 창업 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창업자 개인의 여러 사회·인구학적 측면 변수들, 부모의 창업이나 사업경험 또는 경력, 위험선호성향, 통제의 소재, 성취욕구, 개인적 통제욕구 등 다양한 특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Reynolds(1992)는 창업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환경 특징, 개인의 삶이나 경력, 환경의 특징, 개인의 성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하규수, 김도현, 김대호, 2010).

이지우(2000)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특히 성취욕구, 자기권능감, 내적 통제 부위에 따라 개인의 창업의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창수(2011)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김은경, 강영숙, 2016). 강성일과 박시사(2007)에 따르면 여행업 창업자들은 심리적 요인(성취욕구, 내적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중 내적 통제

와 자아효능감에 영향 받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창업가들의 높은 성취욕구 또는 성공 욕구는 창업의도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이지우, 2000; 이준범, 2019; 최명화, 조성숙, 2014).

보통 창업가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에서 창업 관련 훈련 및 각종 지원을 통하여 성장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왔다. 장대성(2003), 이윤석(2017)은 예술계열 전공 학생의 창업의지가 가장 높았으며 국내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국외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대학생들은 졸업 직후보다 졸업 5년 이후 즉 일정 시간이 지난 창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창업의지가 높았으며, 부모가 창업한 사업가인 학생들이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준(2016)은 창업 실행성을 연구하였는데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립욕구, 창의성, 혁신성이 영향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으로 지각된 기회비용과 장애요인, 재무적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 대학생 때 창업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험이 영향 미치는 조절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창업 실행성은 대학생의 재무적 관심, 지각된 장애요인, 자립욕구, 혁신성에 유의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학생의 지각된 기회비용인지, 창의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봉호(2015)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 성공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험감수성이 자기효능감, 자율성, 내재적 동기 변수와 창업성공 가능성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유봉호(201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내재적 창업 동기에 내재적 동기는 위험감수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감수성이 창업성공 가능성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자기효능감, 자율성, 위험감수성 간에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그리고 창업성공 가능성과 내재적 동기간 위험감수성의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 유봉호(2015)는 위험감수성은 창업성공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자율성 변수도 창업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창업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창업자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유선, 정화영(2018)는 대학생들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창업교육, 창업지식, 창업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은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교육을 수강하려는 성향이 있었고 위험감수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창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창업 지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험감수성향과 창업교육 간의 관계 그리고 성취욕구와 창업 관련 지식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연구자는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을수록 창업지식이 향상되고 창업의지를 높이므로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지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창업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창업교육은 창업을 지원하는 인적 자본 요소, 인적 자본의 대리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 대학은 대학생의 실업 문제 해결,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지원은 세계적인 추세로 글로벌 외환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를 경험한 세계 국가들 대부분은 창업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선택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만성적 대학생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는 창업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꾀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창업대학원, 기술 창업교육센터,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창업 선도대학 등의 형태로 대학생 창업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벤처협회 등은

대학생 창업의 현장의식 강화를 위한 대학생창업 토론회, 대학생창업 한마당 투어,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창업과 관련된 여건이나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World Bank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환경 순위는 세계에서 2008년 126위, 2010년 60위, 2011년 24위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벤처협회 등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는 2008년 126위에서 2010년 60위, 2011년에는 24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창업자 중 대학생의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이 줄어들고 있는지, 대학생의 창업의욕에의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창업교육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대학의 창업문화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장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재훈(2013)은 창업교육, 창업 프로그램 경험은 창업의도나 관심을 높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나 창업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이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창업의지에 중요하며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고 젊은 층의 창업의사 및 실행이 낮아지는 것에 대학들의 창업교육, 정부 정책 입안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중운(2014)은 대학생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개인의 특성과 창업에 대한 태도, 기업가적 자질, 창업능력이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동기 또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서적 특성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동기가 독립성 추구, 수입 또는 자아실현, 가업승계, 기타 사유 등에 따라 창업 관련 여러 행동이나 태도

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창업경험, 부모의 창업·사업업종 등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숙 외(2012)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각된 욕구, 자기 효능감, 통제가능성 등이 청소년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홍(2012)은 대학생 창업의지에 개인의 상황적 요인, 배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Veciana 등(2005)은 대체로 성별이 남성인 경우 창업의지가 높았으며 가족 중 창업가가 있는 경우가 창업의지가 높았음을 밝혔다.

보통 월급을 받기보다 창업해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창업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지역적 한계가 있거나 제도적 장벽이 있는 경우 창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 성격 외에 창업교육이나 각종 다양한 창업 지원제도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창업교육은 특히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생의 창업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창업교육 확산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확산되고 있는 창업교육 양에 비해 대학생들의 창업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창업희망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의 연구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창업교육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 변수의 영향력은 조절 변수로서 그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창업가는 아무나 될 수 있으며, 특히 제도 및 교육 등의 환경을 통해 육성된다는 측면이 중요하므로 조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창업 관련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져왔지만 대학생의 심리적, 성격 특성 그리고 창업태도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연구는 중요하다

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자의 창업 관련 성격에 초점을 두고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의사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실패에 대한 위협인지 또는 부담감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창업실패가능성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인식이나 부담감은 창업의사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연구는 매개변수로서의 영향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즉 잠재창업자의 성격과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성취욕구, 위협감수성, 자아존중감 등의 성격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창업교육 확대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과연 대학생들의 창업의사를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검증연구가 부족하였기에 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욕과 관련한 깊이 있는 선행연구 특히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첫째,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사가 대학생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 특성을 진취성향, 창의성향, 위협감수성향, 성취성향, 혁신성향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공변량구조모델을 통해 조사하였다. 셋째 대학 내 창업교육과 창업 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생의 창업교육 경험여부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그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대학생 창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요인들에 대한 실

증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학 내 창업교육이나 지원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실패부담감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창업과 경험이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교육과정과 훈련의 개선 및 방향 설정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욕과의 연관성,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학의 창업교육 및 정부의 창업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대학생 창업교육이나 창업지원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

창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활동이다. 개인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목표를 세우고 창업을 시작한 창업자들이 창업 환경과 동기는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창업자들은 위험부담, 성취감, 자율성, 일에 대한 열정 등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이와 같은 특성들은 창업의욕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개인의 창업의지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을 선택하는 잠재창업자로서 개인적 특질(trait)이라고 판단된다. 잠재창업자의 심리 특성인 사교성, 창의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 등의 영향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창업의욕이 높은 대학생이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감수자일 가능성이 많은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잠재창업자들의 경영능력과 전략적 계획능력이 사교성이나 성공지향성, 자아긍정성 등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보통 개인의 높은 성취욕구는 창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창업에는 위험감수성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감수는 도전적이며 새로운 모험을 선택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위험감수성향은 창업가적 특성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자들의 행동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의 성공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창업자의 성향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조, 하규수(2017)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들에 대해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자들은 창업에 영향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심리적 특성들, 예를 들면 실패두려움, 성취욕구, 여러 개인적 특성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창업 태도 및 창업자신감이 창

업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sup>2</sup>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적 결과이다. 최근 기술과 경제 환경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창의성과 함께 자기 주도적인 도전의식, 기업가정신, 창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현숙, 백민정(2012)은 청년의 창업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은 통제가능성, 지각된 창업욕구, 실현가능성,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청년 창업 의도는 개인특성 외에도 주관적 규범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은 주로 부모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인에 의해 영향받으므로 창업에 대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정받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준희, 김찬중(2014)은 미래의 대학생들의 창업가적 특성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위험 성향이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은 창업교육에 의한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1) 사교성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사교성은 창업 욕구, 창업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교적인 심리적 특성을 지닌 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창업자의 사교적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창업의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교적 성향은 창업자의 내외적 의사소통 능력과 연결되어 새로운 창업이나 창업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업 관련 연구에서 대학생 사교성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 2) 창의성

창업 분야에서의 창의성은 보통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창업을 창조하고 실행해가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의성을 가진 창업자는 창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업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창의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창업과정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되, 창업의사도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이나 조직에 취업하지 않고 창업하는 청년의 경우 창의성이 높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창의 성향이 높은 창업가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창업수행의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분야에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3) 성공지향성

창업 관련 연구에서 중요시 되어 온 대표적인 창업자 특성 중 하나는 성공지향성이다. 창업 성공지향성은 창업을 통해 가능한 성공해 보고자 하는 창업자의 바람 또는 그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공지향성은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이들을 조직화하는데 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성공 지향적 성향은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아이디어,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성공하려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지향성은 성공적인 창업가의 기본적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성공지향성은 적극적인 경쟁의지로서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도전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지향성은 기업가의 중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성공지향성이 강한 창업자는 도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낮고, 창업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형성하고, 창업성과도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지우(2000)는 성공지향적인 성취욕구는 창업 의사나 실행에 중요한 변수로써 창업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공지향성 및 성취욕구는 창업 동기부여와 목표달성에 큰 원동력이 되며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 위험감수성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은 창업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위험을 받아들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창업가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실행할 것이다. 위험감수성은 위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자극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창업자는 창업과정에서의 위험을 극복하고 창업성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창업활동을 하기때문에 창업을 실행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창업자의 위험감수성향은 창업 태도, 창업 의욕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업과 관련된 위험인지, 손실부담감, 창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태도 등의 변수는 창업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창업은 상당한 비용손실과 위험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위험감수 성향은 창업 실패부담으로 이어져 창업의 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험감수성향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모험 지향적인 특성으로 창업자의 이와 같은 특성은 창업기회를 탐색하고 창업 기회의 발견과 창업의사로 이어질 것이다. Lee, Peterson(2000)은 성공적인 창업가는 위험감수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불확실한 창업 환경이나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 5) 자아존중성

자아존중 성향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이 인지하는 신념이다. 창업의사에 영향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판단된 자아존중 수준이 높은 사람은 창업의사, 창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 위협에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긍정적 믿음이 자아존중성과 연관 깊을 것으로 보인다. 윤방섭(2004)은 자아 존중성이 창업의지에 영향 미치는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이지우(200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창업의지 간의 긍정적 관계를 밝혀냈다.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2. 창업실패 부담감

사람은 어떤 행동 수행 여부 결정에서 그 행동결과가 긍정적 일이라고 판단할수록 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창업실패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정도를 말하는데 창업자의 실패부담감은 창업의사 및 창업 성과에 영향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창업의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창업의 스트레스, 창업에 대한 위협인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창업실패 부담은 창업 실패 후 다가올 상실(예: 사회적, 경제적, 명예, 자존감)에 대한 우려감을 동반한다. 한정화(2008)는 창업실패부담감은 창업과정에서 기업가가 인지하는 위협으로 가족과 자신에게 미칠 위협에 대한 인지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창업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창업가들도 창업에서 실패한다면 사회적 위신, 명예도 잃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창업자 개인은 물론 정부, 대학, 창업지원 기관 등에서는 창업과 기업경영에 대한 교육, 직·간접적 체험제공, 창업능력과 기술 향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오상훈, 하규수(2013)는 창업과 관련하여 개인특성 접근법보다는 환경론적 접근법을 중요시하며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의지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가의 자신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실패 부담감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하규수, 윤백중(2011)은 창업자의 성공지향적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창업실패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실패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하환호, 변충규(2014)는 자기고양편향과 낙관주의 편향, 창업시 성공에 대한 태도, 실패에 대한 태도는 영향 미침을 확인하였다.

### 3. 창업의욕 영향 요인

창업의사, 창업의욕은 동일한 개념으로 선행연구에서 혼용되어왔다. 창업의욕 또는 창업의사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무언가 새로운 사업이나 기업을 창조하려는 욕구이다. 창업의사는 창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하여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마음가짐으로 정의할 수 있다(Bird, 1988). 창업의사는 향후 창업할 가능성 개념이 즉, 의욕은 특정 행동의 실행여부를 예측·설명하는 변수이다. 창업을 시도하려는 행동을 준비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의욕은 창업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의욕, 의사, 의도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왔다.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개인의 창업 의지에 영향 미치는 요인 조사연구가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특질(trait)에 관심을 두

어 왔다. Reynolds(1992)는 창업 의사결정에 경제적 환경, 개인의 삶이나 경력,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허경옥(2016)은 대학생의 창업선호도에서 기업에 대한 태도, 부모의 자영업 경험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허경옥(2020)은 창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창업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창업 후회는 창업 지속 의사를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창업 행동이 일어나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창업의사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특성으로써 창업 실행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창업의사에 관한 이해는 창업 관련 전반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창업자의 특성으로서 창업의사나 욕구, 창업동기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현철, 홍경완(2008)은 창업의 동기 척도를 개발한 결과 긍정적 동기로써 성취욕, 미래 안정성 인식, 지식, 진취적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창업의 부정적 창업 동기로 생계형과 퇴직형을 꼽았다. 이신모(2005)는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인턴십 확대, 창업과정과 기업경영의 직·간접적 체험 기회 제공, 창업에 대한 재능과 가치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업에 대한 자기 유능성을 형성시키려면 창업에 대한 교육과 기술 그리고 체험, 창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배종태, 2009). 대학생의 다양한 성격은 창업동기, 창업의 생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중운(2014)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개인 특성, 경험,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능력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능력, 기업가적 자질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대학생들의 독립성 추구, 자아실현, 적극적 의지가 창업에 관심을 더 가지는 반면 가업 승계 사유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낮음을 밝혔다. 한편 김종운(2014)은 대학생들 중 창업실행 시기를 재학 중 또는 취직·직장생활 이후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졸업 직후로 생각하는 대학생의 창업의지가 높음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창업경험은 대학생 자녀의 창업 관심업종에 영향 미친다고 밝혔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창업경험 및 업종 등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부모의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 대학생들의 창업능력과 의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창업의지의 선행 요소를 개발·자극하는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 관련 가정환경 및 경력 지향성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현숙 외(2012)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 실현가능성, 행동 성향, 자기 효능감 등이 그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대체로 대학생 창업의지에 개인적 요인, 상황적 요인 가족 중에서 창업가가 있는 경우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지현(2010)은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성창수(2011) 역시 창업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 가족의 역할모델, 지인의 역할모델과 창업의도와 의 관계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진주형, 박병진, 2014; 이남희, 2016).

김수진, 한정화, 이상명(2016)은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매개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강영숙(2016)은 노후 경제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가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재명, 강신기(2015)는 직무가 불안정할수록 이직 및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또한 새로운 출발과 강요된 좌절, 창업의도를 높임을 밝혔다. 은퇴를 대비하여 창업 준비를 많이 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직무만족과 직무불안정, 은퇴에 대한 기대와 준비활동이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

다.

최명화, 조성숙(2014)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이 강할수록 창업 효능감이 높고 혁신성, 성취 욕구,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사가 높다고 밝혔다. 반성식, 장성희(2014)의 창업연구에서는 2가지 결과가 강조되었는데 창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성식, 장성희(2014)는 창업 의도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사회적 인식과 창업활동에 매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인식이 창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창업의도를 통해서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규수, 김도현, 김대호(2010) 연구에서는 남성, 부모가 창업한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또한, 남성, 부모가 창업한 경우, 창업 동기가 자아실현인 경우 창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범(2019)은 성취욕구, 내부통제성향, 위험감수성, 자율적 성향은 창업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정희, 김정호(2013)는 혁신성, 자신감, 적극성은 창업의도와 관련이 없으며 이타적 성향은 창업의도에 부적 영향을 성취동기는 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오해동, 최지연, 노전표(2016)는 내적 통제,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히면서 개인적 특성요인 중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창업의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김성환, 복경수, 박재춘(2015)은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 자율성, 유능감은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장수덕, 이재훈(2013)은 대학생 e-비즈니스 창업에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7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등 심리적 특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둘째,

창업 관련 경험, 활동, 롤모델의 노출은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학교의 다양한 지원 활동과 프로그램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창업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창업교육 경험과 창업

대학생 창업교육은 대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창업자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관련 지식, 즉 창업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 동기를 촉진 시키고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창업교육 다양한 산업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가의 육성은 대부분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자국 대학생들이 잠재적 창업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창업교육, 창업특강, 실무교육 및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내 창업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가정신 고취,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 창업절차에 대한 이해도 고취이다. 정부는 창업선도대학 지정 및 지원,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확대 등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의 경우 가능성이 높으며 연간 수입도 높으며 자신들의 창업 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교육이 창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의 공통적 견해는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 관련 태도나 지각을 변화시켜 창업을 촉진시킨 창업교육을 받는 19개국 학생들 43%가 졸업 후 5년 동안 창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UESS 2009) Clark 등(1984)는 미국 대학에서 창업 강의를 수강한 경우 약 80%가 창업을 원하며, 학생들 3/4이 창업계획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6% 대학생들은 창업교육이 창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창업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해동, 최지연, 노전표(2016)은 창업강좌 만족도와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선배가 아직까지는 적은 실정이고, 나아가 창업을 하나의 진로로 인식하는 문화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공공매체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스토리가 많지 않아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부족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오해동, 최지연, 노전표(2016)는 창업에 진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진취성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교육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창업의사를 예측하기 위해 환경적 변수, 개인적 변수의 영향력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환, 복경수, 박재춘(2015)은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강화, 내재적 동기부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사업가적 특성, 내재적 동기부여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이 자기 주도적 성인교육 기법 적용, 창업교육의 전문화, 진로교육으로서 창업 지원 제도의 일상화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석, 이상명(2015)은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교육 경험자의 창업의지는 비경험 학생보다 높았고, 또한 기업가 지향성 중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가정환경, 높은 위험감수성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박광오, 안진우(2015)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창업의지와 그 영향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과 대학 창업 인프라는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애로사항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욱, 하규수(2011)는 소상공인들의 창업결정과 창업성공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커리큘럼 개발, 퇴직 등 연령대별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표, 변충규, 하환호(2015)는 미래지향적 사고관, 자기효능감, 모호성 인내력,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과 모호성 인내력은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잠재창업자인 대학생의 성격과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 특성 변수는 독립변수로 창업실패부담감은 매개변수로 창업의욕은 종속변수로 하여 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본 모델의 변수들이 창업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창업 교육지원경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욕 수준에 따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집단, 중간 집단, 의지가 없는 집단을 판별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욕 수준에 따라 창업의욕이 낮은 집단, 창업의욕이 보통 수준인 집단, 창업 의욕 높은 집단, 3 집단으로 구분한 후 중 어떤 변수가 이들 3 집단을 판별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판별분석(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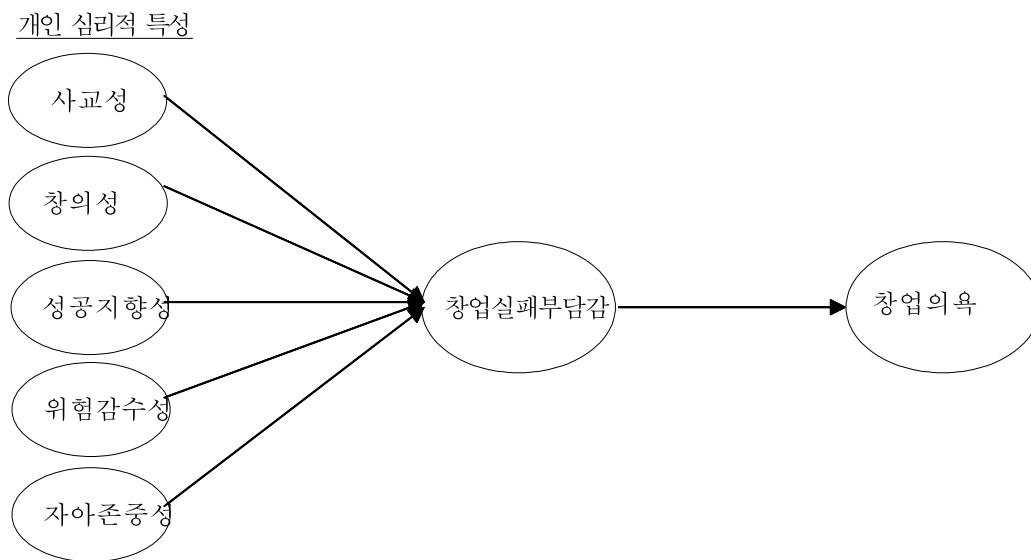
<연구문제1> 잠재창업 대학생의 성격,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이 대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잠재창업 대학생의 성격,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잠재창업 대학생의 성격,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조절되는가?

<연구문제4> 잠재창업 대학생의 창업의욕 수준에 따라 분류한 3 유형 집단, 즉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집단, 중간 집단, 의지가 없는 대학생 집단을 판별하는 변수는 어떤 것인가?

<그림1> 본 연구 모델



##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표집방법은 편의표집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창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대학생의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창업 관련 의식이나 태도, 창업 성공 및 실패 관련 심리적 특성, 창업의욕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5월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사전 예비 조사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2015

년 6월 수행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허경옥(2016)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 20개 질문 항목,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 및 분석 내적타당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의 질문을 제외한 13개의 질문을 <표 1>처럼 사용하였다. 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성, 창의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성이다.

창업실패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해 하규수(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5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적 타당도 분석(Cronbach 알파값)을 통해 신뢰도를 낮추는 질문 1개를 제외시키고 결국 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창업실패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4개 질문의 내적타당도는 .78로써 적정하다고 하겠다.

창업의욕을 측정하기 위해 허경옥(2016;2020) 연구를 참고하여 총 5개 질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 타당도 조사를 반영하여 문항 2개를 제외시키고 2개의 질문 항목을 선정하였다. 2개 질문의 내적타당도는 .60을 초과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하겠다.

<표1>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질문내용	평균 (S.D)	요인 적재치	Eigen값	Cronbach's α
성격 사교성	· 나는 타인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	3.74	.87	19.50	.85
	· 나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다.	3.69	.87		
	· 나는 여러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3.28	.79		
창의성	· 나는 글을 쓰거나 만들기를 좋아한다.	3.47	.74	14.47	.68
	·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내기를 좋아한다.	3.50	.85		
	· 나는 새롭게 변화하는 생활을 좋아한다.	3.38	.72		
성공 지향성	· 타인이 선호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2.99	.75	14.40	.69
	· 성공의 시작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다.	3.38	.79		
	· 삶에서 직업,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	3.04	.79		
위험 감수성	·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2.81	.83	13.41	.74
	· 고소득을 위해 위험감수는 받아들인다.	2.55	.87		
자아 존중성	· 나는 나의 장래가 밝다고 확신한다.	3.61	.73	11.89	.75
	·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3.83	.75		
창업 실패 부담감	· 사업을 하면 몹시 불안해질 것 같다.	3.13	.75	18.43	.78
	· 사업을 할 경우 실패의 두려움이 많다.	3.53	.57		
	· 항상 사업이 실패할까 조마조마할 것이다.	3.17	.78		
	· 사업강박으로 휴식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3.04	.61		
창업 의욕	· 나는 창업할 계획이 있다.	3.65	.80	16.50	.78
	· 나는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43	.76		
	· 창업을 위해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	3.69	.66		

####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 프로그램(version 22.0)과 AMOS(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통계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대학생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키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5개요인 즉, 사교성, 창의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긍정성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 창업의욕이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집단 간 차이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성격과 창업실패부담감 변수들 간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 분석(Structural Covariance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공변량구조 분석 수행에 앞서 측정변수들을 선정하고 유형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척도의 타당도를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창업 교육경험의 조절효과 파악을 위해 사전적으로 측정모델 등가성 확인한 이후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편, 창업 교육경험의 조절효과 파악을 위해 사전적으로 측정모델 등가성 확인한 이후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창업의욕 수준에 따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집단, 중간 집단, 의지가 없는 집단을 판별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275명으로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 중 남학생이 약 59%, 여학생이 약 41%였다. <표3>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대학생 중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58%였고, 42% 부모가 창업교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용돈의 경우 21-40만원이 약 49%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이 속한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01-400만원 약 33%, 401-600만원 약 28%, 801만원 이상 약 17%, 200만원 이하와 601만원-800만원이 각각 약 11%로 나타났다. <표3> 조사대상자들 중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의 창업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생활 및 부의 축적이 약 54%로 가장 많았으며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는 창업아이템 및 창업자금의 부재가 약 43%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들의 아버지 직업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은 사업이 약 37%, 회사원 약 33%, 전문직·공무원 약 27% 등의 순서였다. <표2>에 대학생의 희망 취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제조·건설 업종 분야 희망의사가 약 45%로 가장 많았다.

<표2> 조사대상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275)

변수	구분	N(%)
성별	남학생	163 (59.3)
	여학생	112 (40.7)
부모 직업	사업	95 (0.33)
	회사원	84 (0.29)
	전문직·공무원	69 (0.24)
	유통·서비스	6 (0.02)
	무직	9 (0.03)
본인 용돈	20만원이하	37 (17.5)
	21-40만원	104 (49.3)
	41-60만원	57 (27.0)
	61-80만원	6 (2.8)
	81-100만원	7 (3.3)
취업 희망분야	제조·건설	121 (0.42)
	금융	24 (0.08)
	유통·서비스	61 (0.21)
	공공사업·공기업	34 (0.12)
	통신·운수/기타	33 (0.10)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이하	19 (11.2)
	201-400만원	56 (32.9)
	401-600만원	47 (27.6)
	601-800만원	19 (11.2)
	801만원이상	29 (17.1)

<표3> 조사대상 대학생의 창업 관련 특성 (n=275)

변수	구분	N(%)
부모창업 여부	창업경험있음	159 (57.8)
	창업없음	116 (42.2)
창업희망 이유	생활·부족적	122 (0.43)
	자아실현	72 (0.25)
	취업실패대안	25 (0.08)
	주변권유	9 (0.03)
창업주저 이유	아이템	111 (42.9)
	자금부재	84 (32.4)
	실패부담	69 (0.24)
	주변만류	30 (11.6)
	무직	34 (13.1)

참조: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2.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 차이 검증

조사대상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의욕 차이를 파악코자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t-test를 통해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들의 결과는 <표4>, <표5>과 같다. <표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실패부담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았다. 한편, 대학생의 창업 실패감의 경우 향후 취업 희망분야, 본인 용돈과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창업실패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용돈의 경우 4-60만원의 중간 수준 용돈을

받는 대학생들의 창업실패감 인식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편 가계소득이 낮은 600만원 이하인 경우 창업실패감 인식수준이 높았다. 그 뒤로 41-60만원, 20만원 이하, 61-80만원, 21-40만원의 순서가 나타났다.

<표4>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 차이 검증

변수	구 분	창업실패부담감		
		평균	t/F	D
성별	남성	12.62	1.96**	
	여성	13.22		
부모창업 경험여부	창업경험없음	12.32	1.10	
	창업경험있음	13.09		
연령	1~2학년	13.48	.83	
	3학년	12.79		
	4학년	14.50		
향후 취업분야	제조·건설	12.80	1.98*	ab
	금융	13.75		b
	유통·서비스	12.83		ab
	공공사업·공기업	13.14		ab
	통신·운수	10.50		a
	기타	12.45		ab
본인 용돈	20만원이하	13.27	2.04*	b
	21-40만원	13.29		b
	41-60만원	11.96		a
	61-80만원	13.66		b
	81-100만원	13.00		b
가계 소득	200만원이하	13.94	1.96*	b
	201-400만원	12.54		b
	401-600만원	13.91		b
	601-800만원	12.55		a
	801만원이상	12.71		a

\*  $p < .05$ , \*\*  $p < .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한편, <표5>의 창업의욕은 성별, 연령, 본인 용돈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의욕이 강했고, 4학년 대학생의 창업의욕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학생보다 높았다. 겉으로 대체로 본인 용돈 수준이 낮을수록 창업의욕 수준이 높았다.

<표5> 대학생의 창업의욕 차이 검증

변수	구 분	창업의욕		
		평균	t/F	D
성별	남성	11.62	1.97**	
	여성	10.97		
부모창업 경험여부	창업경험없음	10.63	.17	
	창업경험있음	10.54		
연령	1~2학년	10.92	2.14*	a
	3학년	10.73		a
	4학년	13.00		b
향후 취업분야	제조·건설	10.76	1.03	
	금융	11.12		
	유통·서비스	10.34		
	공공사업·공기업	11.32		
	통신·운수	10.50		
	기타	10.79		
본인 용돈	20만원이하	11.00	2.74*	bc
	21-40만원	11.23		c
	41-60만원	10.26		b
	61-80만원	10.70		b
	81-100만원	9.57		a
가계 소득	200만원이하	10.94	1.04	
	201-400만원	10.78		
	401-600만원	11.27		
	601-800만원	10.68		
	801만원이상	10.20		

\* p < .05, \*\* p < .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 3.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 1)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걸러진 측정항목을 선정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확인을 하였는데 그 확인 기준은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하며, 측정변수들 요인 부하값이 0.5보다 커야 한다.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50 보다 커야하고 잠재요인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수치가 0.7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파악하면 <표6>에 제시한 것처럼 표준화 요인부하량( $\beta$ )은 .50보다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표6>에서 개념신뢰도가 0.7보다 크다. 평균분산추출 값(AVE)가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모델이 타당성 확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부 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 추출값이 이 기준치에 약간 못 미치고 있으나 다른 측정 항목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CFA) 수행 결과인 <표6>에서 적합도 수치인 GFI=.91, AGFI=.88, IFI=.94, CFI=.94, RMR=.047, RMSEA=.052 로 나타나 타당성 기준 수준은 충족하고 있어 본 모델이 수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X^2$ 값이 261.481로 이 값을 자유도(df=149)로 나눈 값은 1.75로 나타나 판정 기준인 1에서 3사이에 속해있어 적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표6>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도 확인

항목		비표준화 요인부하(B)	표준화 요인부하 (β)	t값	SMC	평균분산 추출값(AVE )	개념신뢰도 (C.R.)
사교성	사교성1	1.08	.87	13.12	.77	0.73	0.89
	사교성2	1.11	.90	13.28	.82		
	사교성3	1.00	.69	-	.48		
창의성	창의성1	.87	.52	7.15	.27	0.48	0.72
	창의성2	1.33	.90	7.51	.81		
	창의성3	1.00	.59	-	.35		
성공 지향성	성공지향성1	.947	.60	6.80	.36	0.41	0.68
	성공지향성2	1.09	.72	6.76	.51		
	성공지향성3	1.00	.63	-	.40		
위험 감수성	위험감수성1	1.50	.91	5.95	.83	0.67	0.80
	위험감수성2	1.00	.64	-	.41		
자아 존중성	자아존중성1	1.23	.84	9.97	.71	0.65	0.78
	자아존중성2	1.00	.72	-	.52		
창업 실패 부담감	실패부담1	1.00	.71	-	.51	0.51	0.80
	실패부담2	.85	.71	10.54	.51		
	실패부담3	1.12	.85	11.46	.73		
	실패부담4	.74	.51	7.65	.26		
창업 의욕	창업의욕1	1.00	.82	-	.67	0.59	0.81
	창업의욕2	1.03	.90	15.09	.82		
	창업의욕3	.80	.73	13.00	.53		

개념신뢰도(C.R.)=( $\sum$ 표준추정치)<sup>2</sup>/[( $\sum$ 표준추정치)<sup>2</sup>+(측정변수의오차항)]≥0.7

평균분산추출값(AVE)=( $\sum$ 표준추정치<sup>2</sup>)/[( $\sum$ 표준추정치)<sup>2</sup>+(측정변수의오차항)]≥0.5

X<sup>2</sup>=261.48\*\*\* df=149, p=0.000, CFI=.94, GFI=.91, AGFI=.88, IFI=.94, RMR=.04, RMSEA=.05

판별타당성을 통해 상관관계 수치와 평균 분산추출 값(AVE)의 비교를 통해 <표7>에 제시한 것처럼 AVE값 모두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나 잠재변수들이 판별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표7>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 변수	√AVE	사교성	창의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성	창업실패부담감	창업의욕
사교성	0.85	1						
창의성	0.69	.12	1					
성공지향성	0.64	.07	.04	1				
위험감수성	0.82	.14	.06	-.00	1			
자아존중성	0.80	.27	.14	.03	.16	1		
창업실패부담감	0.71	-.09	-.08	.06	-.02	-.14	1	
창업의욕	0.77	.10	.19	-.05	-.01	.19	-.22	1

참조: 타당성 기준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VE값에 제공근을 취해 제공근 값이 상관관계 수치보다 큼을 확인하였음.

## 2) 창업의욕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

대학생의 특성, 창업실패부담감이 대학생의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8>과 같고 결과를 <그림2>처럼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공변량구조 모형의 적합도 판정지수  $\chi^2=285.811$ , RMSEA= .05, CFI= .93, GFI= .91, AGFI= .87, IFI= .93로 나타났다. RMSEA는 .05 이하, NFI, CFI, GFI, IFI는 .90 이상이 적합한 판정 기준이므로 본 연

구모형은 양호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들 간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2>와 같이 첫째, 창의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생의 성격 특성은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 성향은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향이 높고,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고, 위험감수성향이 높으며, 본인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대학생 일수록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대학생의 창업의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창업의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창업의욕이 강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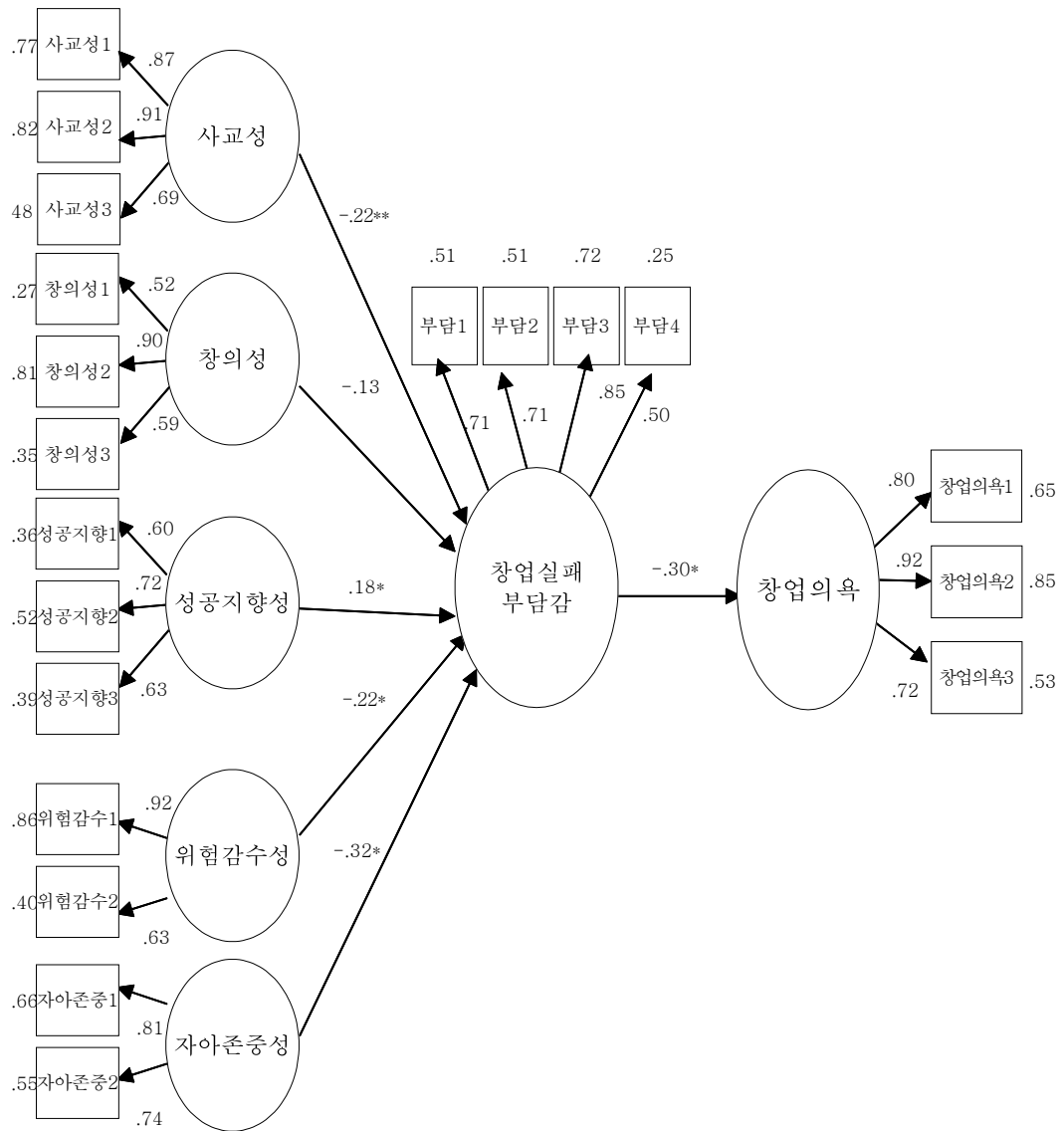
<표8> 창업의욕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 $\beta$ )	t값
사교성 → 창업실패부담감	-.21	-.22	-2.30**
창의성 → 창업실패부담감	-.15	-.13	-1.66
성공지향성 → 창업실패부담감	-.20	-.18	2.32*
위험감수성 → 창업실패부담감	-.27	-.22	1.97*
자아존중성 → 창업실패부담감	-.35	-.32	-2.75*
창업실패부담감 → 창업의욕	-.43	-.30	-4.33*

GFI=.91, AGFI=.87, IFI=.93, CFI=.93, RMR=.06, RMSEA=.05,  
Chi-square(df)=285.81(15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2> 창업의욕 영향 요인 구조분석 결과 도식



\*  $p < .05$ , \*\*  $p < .01$

#### 4. 창업교육경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창업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개의 집단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항목에 대한 인식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즉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창업교육경험 여부로 나눈 두 집단의 측정도구에 대한 차이(카이제곱 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표9>에서  $\chi^2$  값의 증가치( $\chi^2=23.433$ ,  $df=13$ )가  $P<0.05, df=13$  일때 유의수준인  $\chi^2=232.4$ 보다 작으므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9> 측정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비교

	chi-square	df	RMSEA	AIC	CFI
Unconstrained	449.21	298	.04	693.21	.92
Measurement weights	472.65	311	.04	690.65	.92
비제약모델- 제약모델	$\Delta\chi^2=19.43, \Delta df=13$				

대학생 개인의 특성과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이 창업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 개인의 특성이 창업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교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창업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사교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이 사업실패부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창업교육을 받

지 않은 대학생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데 창업교육이 중요함을 뜻한다.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역시 창업교육경험이 없는 대학생 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경로계수 차이검증

경로	$\beta$		$x^2$	df	$\Delta x^2$	$\Delta df$	p
	창업교육경험 없음	창업교육경험 있음					
비제약모델(기준모델)			485.84	308			
사교성 → 창업실패부담감	-.36	-.10	489.88	309	4.03	1	.03
창의성 → 창업실패부담감	.021	-.12	486.51	309	.67	1	.41
성공지향성 → 창업실패부담감	-.28	-.17	488.97	309	3.12	1	.04
위험감수성 → 창업실패부담감	-.39	-.09	489.94	309	4.10	1	.03
자아존중성 → 창업실패부담감	-.48	-.22	487.58	309	1.74	1	.18
창업실패부담감 → 창업의욕	-.47	-.22	489.96	309	4.11	1	.03

## 5. 창업의욕 수준에 따른 집단들 판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욕 수준에 따라 창업의욕이 낮은 집단, 창업의욕 보통 수준 집단, 창업의욕이 높은 집단 3 집단으로 구분한 후 중 어떤

변수가 이들 3 집단을 잘 판별하는가를 판별분석(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 창업의욕의 경우 3개 질문, 5점 척도의 합으로 창업의욕 소극 집단(3~8), 창업의욕 중간 집단(9~11), 창업의욕 적극 집단(12~15)로 분류하였다.

판별분석 방법은 판별력에 적합한 변수부터 투입하고, 판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면 제외시키는 단계별 변수투입방식(Stepwise)을 사용하였다. 판별분석결과 본 연구의 집단이 3개이므로 2개의 판별함수가 산출되었다. 정준상관계수, 전체자승합에 대한 집단 내 자승합의 비율인 Wilk's  $\lambda$ , 그리고  $\chi^2$  검증 결과로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판별함수와 제2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11> 대학생 창업의욕에 대한 판별분석 함수 분석 결과

판별함수	Wilk's $\lambda$	$\chi^2$	df.	p
1*	0.87	67.41	8	0.00**
2*	0.98	8.39	3	0.03*

\*  $p < .05$ , \*\*  $p < .01$

<표12>에 정준상관계수, 표준화·비표준화 판별계수, 집단 중심치를 제시한 바 집단변수와 판별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는 제1함수의 경우 33%의 판별력을, 제2판별함수의 경우 13%의 판별력을 보이고 있다. 각 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판별계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성이 창업의욕을 판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중심치는 각 함수에 있어서 3개의 창업의욕의 판별점수를 나타낸다. 창업의욕이 낮음과 높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창업의욕의 판별분석 결과표

구분	표준화정준판별계수	
	함수1	함수2
성별(여성=1)	4.34 (.41)	.142 (.04)
연령	--	--
결혼여부	--	--
가계소득	--	--
사교성	--	--
창의성	--	--
성공지향성	6.71 (0.59)	.09 (-0.07)
위험감수성	3.67 (0.44)	-0.47 (-0.43)
자아존중성	2.11 (0.29)	0.89 ( .88)
정준상관계수	.33	.13
집단중심치		
창업의욕 낮음	-0.35	0.08
창업의욕 보통	0.03	-0.17
창업의욕 높음	0.55	0.11

참조: 괄호 안 계수는 비표준화 판별계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값을 제시함  
참조: 본 연구에서 제품결함이 있는 경우 표본수가 많은 집단은 예측된 집단 1로서, 최대우연기준치는 36%이고 비율우연기준치는 32%이며, 약 25%정도 높은 45%-40%가 판단기준이 된다.

<표13>은 판별함수가 정확하게 창업의욕 3집단을 분류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분류결과표이다. 본 연구는 집단들의 표본수가 다르므로 최대우연기준치(maximum chance criterion), 비율우연기준치(proportional chance criterion)를 토대로 판별력을 판정할 수 있다. 본  
참조: 본 연구에서 제품결함이 있는 경우 표본수가 많은 집단은 예측된 집단 1로서, 최대우연기준치는 36%이고 비율우연기준치는 32%이며, 약 25%정도 높은 45%-40%가 판단기준이 된다.

결과에서 정확히 분류된 비율은 47.6%로서 유용성 판단기준(45%-40%)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판별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13> 대학생 창업의욕 분류결과표

집단 유형	N	예측 분류된 집단1	예측 분류된 집단2	예측 분류된 집단3
창업의욕 낮음	201	100 (49.8%)	53 (26.4%)	48 (23.9%)
창업의욕 보통	179	57 (31.8%)	70 (39.1%)	52 (29.1%)
창업의욕 높음	120	25 (20.8)	27 (22.5%)	68 (56.7%)
계	500	182	150	168

정확히 분류된 비율 (hit ratio) = 47.6%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창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개인 심리적 특성과 창업실패부담감이 대학생의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원분산분석 및 T검정을 실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 교육지원경험 조절 효과를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이 대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창업실패부담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았다. 향후 취업희망분야가 금융 분야인 경우 창업실패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통신·운수 분야가 가장 낮았다.

둘째, 창업의욕의 경우 성별, 연령, 본인 용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창업의욕이 강했으며 현재 4학년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이 저학년 대학생보다 강했다. 본인 용돈의 경우 81-100만원의 용돈을 받는 즉 가장 많은 용돈을 쓰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이 가장 낮았고, 용돈이 적을수록 대체로 창업의욕이 높았다.

셋째,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 대학생의 사교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성 성향은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향이 높고,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고, 위험감수성향이 높으며, 본인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자신들의 창업의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창업의욕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사업실패감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수록 창업의욕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창업교육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에서 사교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교육경험 여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사교성,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이 사업실패부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창업교육이 중요함을 알려 주었다.

끝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욕 수준에 따라 창업의욕이 낮은 집단, 창업의욕이 보통인 집단, 창업의욕이 높은 집단, 3 집단으로 구분한 후 중 어떤 변수가 이들 3 집단을 잘 판별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성별, 성공지향성, 위험감수성, 자아존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욕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실패 부담감을 줄이는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학생의 창업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나 창업 프로그램 특히 창업실패감의 심리적 측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창업 또는 사업경험이 자녀인 대학생의 창업의욕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의 창업실패 또는 성공 사례를 일반 대학생들이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창업실패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략의 중요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험감수성향을 높이고 도전적인 창업가 또는 사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대학생 창업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창업교육경험 여부가 본 연구에서 조절 기능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창업교육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행동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즉 대학생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창업교육 전략의 발전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여학생, 저학년 대학생, 금융 분야 취업희망학생, 용돈이 아주 많거나,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창업에 대한 실패감 수준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패감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잠재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창업 관련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창업가적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창업 교육 및 지원에 중점을 두는 연구 조사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성일, 박시사(2007). 개인 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강영욱, 하규수(2011). 창업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 대회 논문집, 41-67.
- 김상표, 변충규, 하환호(2015). 미래지향 시간관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모호성 인내력의 매개효과. 경영컨설팅연구, 15(4), 47-56.
- 김성환, 복경수, 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수진, 한정화, 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9-61.
- 김은경, 강영숙(2016). 노인준비와 사회적네트워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5), 105-115.
-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 김현철, 홍경완(2008). 외식창업동기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호텔관광연구 10(2), 57-68.
- 김혜화, 변상해(2018).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5), 17-28.
- 노현철(2016). 예비창업가의 개인 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혁신학회, 16(5), 12-23.
- 박광오, 안진우(2015).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4(3), 303-315.
- 박지유, 양해술(2013).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97-107.

- 반성식, 장성희(2014). 창업태도와 인식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GEM data를 이용한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생산성논집, 28(4), 405-431.
- 배병윤, 이주현(2015). 대학생의 조절초점성향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215-223.
- 배종태(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경영관련학회계통합학술대회, 1-7.
- 성창수(2011). 시니어창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양승용(2017). 콘텐츠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업 강좌 만족도, 창업 강좌 효과, 창업태도 양이 콘텐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8), 377-384.
- 양인숙(2005). 여성창업의 성공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지, 3, 131-147.
- 오상훈, 하규수(2013).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1(8), 143-157.
- 오해동, 최지연, 노전표(2016).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휴스टे드 문화 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35-48.
- 유봉호(2015).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위험 감수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7(2), 87.
- 육창환, 전인오(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창업 멘토링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661-676.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 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05.
- 이남희(2016). 경력단절 여성 특성과 여성 네트워크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지원 정책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모(2005). 한·미·일 대학생들의 창업의식비교. 국제지역연구 9(3), 186-207.
- 이원준(2016). 대학생의 창업 실행성과 창업 의지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16(5), 978-982.
- 이윤석(2017).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대학생 창업의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5), 304-323.
- 이재명, 강신기(2015).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151-163.
- 이재석, 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63-74.
- 이준범(2019).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벤처 창업연구, 14(1), 1-15.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22(1), 121-146.
- 이현숙, 백민정(2012). 학술연구 : 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65.
- 장대성(2003). 한국과 미국의 창업 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창업 교육 전략 수립.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8(1), 129-139.
- 장수덕, 이재훈(2013). 대학생 e-비즈니스 창업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e-비즈니스연구, 14(3), 37-53.
- 정유선, 정화영(2018). 대학생들의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및 창업

- 의지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벤처창업학회, 13(6), 75-87.
- 조영조, 하규수(2017).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 22(5), 51-64.
- 조준희, 김찬중(2014). 대학생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17(2), 109-126.
- 진주형, 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
- 최명화, 조성숙(2014).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 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226-241.
- 하규수(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하규수, 김도현, 김대호(2010).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가 창업 및 사업 유지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8, 263-288.
-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2009). 잠재적 창업가의 사업실패 부담감과 환경요인이 창업 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9(8), 1-29.
- 하규수, 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2011(s), 85-99.
- 하규수, 한정화(2010). 기업가의 사업실패스트레스와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2(1), 21.
- 하환호, 변충규(2014). 긍정적 인지편향이 창업시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4), 145-153.
- 한정희, 김정호(201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6), 2777-2797.
- 허경옥(2016). 대학생의 창업환경, 기업 및 기업규제에 대한 태도가 창업선호

- 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 : 부모의 자영업경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1(4), 18-43.
- 허경옥(2020). 소규모 가족 창업자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가 창업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논총, 24(2), 1-12.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Clark, B. W., Davis, C. H., and Harnish, V. C.(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26-31.
- Lee, S. M., Peterson, S. J.(2000). Cultu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35(4), 401-406.
- Reynolds, P.D. (1992). Predicting new firm births : Interaction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populations. In Sexton, D.L., & Kasarda, J.D. (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268-297. Boston: PWS-Kent Publishing.
- GUESS(2009), 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 South African Report 2008-2009,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Behaviour of South African University Students. Available from [http://www.guesssurvey.org/PDF/2009/Guesss\\_SACountryReport\\_Final08\\_09.pdf](http://www.guesssurvey.org/PDF/2009/Guesss_SACountryReport_Final08_09.pdf)
- Veciana, J. M., Aponte, M. and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ABSTRACT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start-up college students and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Kim, Min Kyoung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which can be seen as potential entrepreneurs, on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and start-up motivation was analyzed. Start-ups are recently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college student unemployment amid low growth, corporate restructuring, and employment insecurity, and research on start-ups continues to increase, bu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potential entrepreneurs with little social experience,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how the person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potential founders, affect entrepreneurship motivation and other entrepreneurship-related field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which can be called potential entrepreneurs, and the effect of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on

entrepreneurship motiv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his research problem,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as conducted, and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s the collected survey data.

Specifically, in this study, first, one-way ANOVA and T-test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start-up failure burden, and start-up motivation differed according to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Seco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natur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parameter was set as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start-up motiv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was verified through covariate structure analysis. Third, it was estimated that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et in this model would differ depending on whether college students have experience in start-up education, so the effect of controlling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start-up education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nd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college students' start-up failure burden and start-up motivation according to various characteristics, college students' start-up failure burden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According to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was the highest when they wanted to get a job at a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was the lowest when they wanted tele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On the other hand, male students were more positive than

female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with fathers who are currently in business were the most positive.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who spent a lot of pocket money (81-1 million won) were the most motivated to start a busi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motivation was high when male students, fourth graders, and their own pocket money were low.

Third, as a result of covariate structure analysis, college students with high social orientation, strong desire for success, high risk sensitivity, and positive perception of themselves had lower levels of burden on business failure. In addition, the greater the burden of business failure, the weaker the motivation to start a business, and the stronger the motivation to start a business is for college students who think positively about business failure.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education experience, it was found that sociality, success orientation, and risk-taking had a greater negative influence on the burden of business failure in the group receiving start-up education. This means that start-up education is important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business failure. The negativ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burden of start-up failure on entrepreneurship motivation wa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group with experience in start-up education.

Finally, a survey found that gender, success orientation, risk sensitivity, and self-esteem were well identified after classifying thes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are very important for entrepreneurship motivation.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rom various aspect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can be used in various policies related to youth start-up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college students' start-up behavior, and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start-up education is expecte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is study.